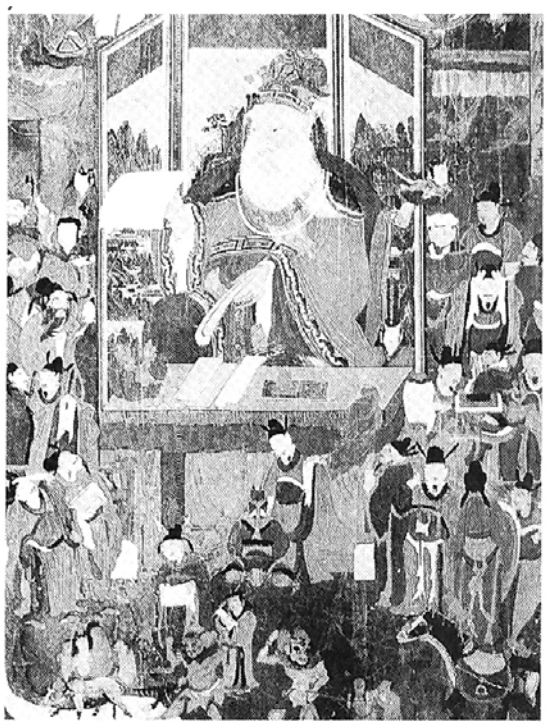
구루신앙 영향 종교지도자 존중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㉒

라마불교 ②



◇ 라마불교는 인간 사후의 모습과 윤회 과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자세히 설명한다. 사진은 지옥도의 한 장면.

승려는 사자(死者)에게 이렇게 독경한다.

"당신의 식(識)은 이제 공(空)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은 무(無)가 아니라 충만한 것으로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며 찬란히 빛나고 가볍게 떨리면서 행복한 바로 식(識) 자체인 완벽한 붓다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눈에 비치는 물위의 달이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같이 그런 자신의 신성을 명상하라고 권한다.

해탈하지 못한 자의 영혼은 두번째 바르도로 들어간다. 죽은 자는 사람들이 방청소를 하고 그의 옷을 벗기는 것을 보게 되며 가족들이 우는 것을 듣는다. 행위가 생생히 비친다. 재판관 염라대왕은 양심이며, 업경은 기억이다.

긴 통과의식이 끝나면 사자는 자기가 어디에 다시 태어날지를 알게 된다.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 독자는 에반스 웬츠(W.Y.Evans Wentz)의 〈티벳사자(死者)의 서(書), The Tibetan Book of the Dead〉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책에는 융(Jung)의 유명한 서문이 있다. 책 제목은 이집트의 〈사자의 서〉를 연상시킨다. 보다 쉬운 텍스트로는 '새들에 대한 붓다의 설법'이란 서사시가 있다.

아침 저녁으로 지저귀는 새소리의 합창에서 발상을 따온 것 같은 새들의 회의 장면은 그리스, 페르시아, 영국, 인도

11세기 아티샤가 정법수호·계율엄수 제창

14세기말 개혁이후 몽골등에 전파
승려덕행·교리학습 철저 주장
음악·연극·만다라미술 성행

하지만 그는 말을 할 수 없다. 이때 그는 환영을 보게 된다. 먼저 선신(善神)들이 나타나며 그뒤 무서운 모습의 악신(惡神)들이 나타난다. 이때 승려는 독경을 통해 그 환영들은 실제가 아니라 단지 그의 의식의 그림자일 뿐이란 것을 일깨운다.

다음 칠일동안 일곱명의 평화의 신들이 나타나 각기 다른 색깔의 빛을 비추어 영혼이 환생할 세계를 보여준다. 그 중에는 인간세계도 들어 있다. 승려는 독경을 통해 영혼이 속세의 유혹을 뿌리치고 좋은 세계를 선택하도록 권고한다.

그 신들과 빛이 보여주는 세계는 실상 그 영혼이 생전에 축적한 업(業)의 방사(放射)일 뿐이다. 칠일이 지나면 그 신들은 다시 모습을 바꾸어 이번에는 험악한 악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떤 것은 머리가 세개에, 팔이 여섯개 그리고 다리가 네개 달렸다. 온몸을 해골과 검은 뱀으로 치장하고, 입에선 화염을 내뿜는다. 오른쪽 팔들은 칼, 도끼, 수레바퀴를 휘두르고, 왼쪽 팔들은 종, 쟁기, 해골을 치켜든다. 그 해골에는 피가 담겨있어 마실 때마다 악귀의 입으로 피가 흘러 내린다.

이렇게 해서 십사일째가 되면 호랑이, 돼지, 범, 사자의 머리를 단, 동서남북을 대표하는 거대한 몸짓의 사방수호신이 나타나 영혼을 위협한다.

마침내 영혼은 염라대왕 앞으로 불려나가 심판을 받게된다. 변호신이 나와서 그의 선행을 열거하고 나면, 악신이 나와 그의 죄과를 들춘다. 영혼은 변명을 하려 들지만, 업경(業鏡)에 그의 생전의 행위가 생생히 비친다. 재판관 염라대왕은 양심이며, 업경은 기억이다.

긴 통과의식이 끝나면 사자는 자기가 어디에 다시 태어날지를 알게 된다.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 독자는 에반스 웬츠(W.Y.Evans Wentz)의 〈티벳사자(死者)의 서(書), The Tibetan Book of the Dead〉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책에는 융(Jung)의 유명한 서문이 있다. 책 제목은 이집트의 〈사자의 서〉를 연상시킨다. 보다 쉬운 텍스트로는 '새들에 대한 붓다의 설법'이란 서사시가 있다.

아침 저녁으로 지저귀는 새소리의 합창에서 발상을 따온 것 같은 새들의 회의 장면은 그리스, 페르시아, 영국, 인도 등지의 문학에 등장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붓다는 신들과, 악귀들과, 인간들뿐 아니라 우주의 모든 언어로 설법을 하였다고 한다. 이 서사시에서 관세음보살은 뻐꾸기로 화신(化身)하여 티벳과 인도의 새들에게 설법한다. 독수리, 학, 거위, 비둘기, 까마귀, 부엉이, 닭, 종달새, 공작새 등은 각자 삶의 고(苦)와 무상(無常)을 고백한다.

뻐꾸기로 변한 관세음보살은 사회자인 앵무새의 요청으로 그 자리에 모인 새들에게 세상의 실상(實相)이 공(空)임을 깨우쳐 준다. 돌로 세워진 굳건한 궁전도 결국 세월의 풍화작용을 견딜 수 없으며, 일가친척과 친구와의 만남도 하룻밤 함께 빵을 나눈 여행자 사이의 만남과 진배없는 것이다. 육체는 구름처럼 허망하고, 공작새의 찬란한 깃털도 사라지는 거품과 같은 것이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태어나고 죽는 꿈을 꾸는 것이다. 그 설법에 감화받은 새들은 앞으로 행실을 바로 잡을 것을 맹세한다. 단지 악에 깊이 물들어 있는 솔개와 까마귀만이 맹세에 불참한다. 감화받은 닭은 이렇게 말한다.

속세에 사는 동안에는 영원한 행복이란 없다.

이것 저것 해야할 일은 끝이 없다.

육체도 혈액도 무상하지 않은 것은 없다.

죽음의 신 마라는 항상 노리고 있다.

아무리 부자라도 결국 빈손으로 홀로 떠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잃을 수 밖에 없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실체는 없다.

이탈리아 아시시 출신의 프란시스코도 새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가 한 설교는 새들에게 아름다운 옷과 원하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자유를 준 신께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라마는 티벳어로 상인(上人)이라는 뜻이다. 티벳불교는 인도 대승불교중 특히 후기밀교(後期密敎)의 구루(上人) 신앙의 영향을 받아 종교 지도자를 존중하는 강한 전통을 세우게 된 것이다. 오늘날 티벳불교의 주된 전통은 1042년 인도에서 입국한 아티샤가 주도한 불교 부흥운동 이후에 세워진 것이다. 티벳에서는 이 시기 이후의 불교역사를 후기 홍통시대(後期弘通時代)라고 한다.

아티샤는 정법(正法)을 수호하고 계율을 엄수할 것을 제창하였다. 그의 사후 여러 개의 종파가 생겨나고, 정법과 계율은 다시 세속권력과 결탁하여 타락해 갔다. 14세기 말 아무드 지방의 촌카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개혁운동의 지도자들은 아티샤의 법맥을 계승할 것을 선언하고, 승려의 덕행을 존중했으며, 밀교의 바탕인 반야(般若), 중관(中觀) 교리의 철저한 학습을 주장했다. 몽골과 중국 동북지방으로 전파된 티벳불교는 아티샤의 개혁 이후 세확장에 따른 것이다.

티벳불교의 종교의례음악은 라마승의 독경과 찬가가 조화를 이루고 기악반주를 곁들인다. 종교음악은 티벳 태음력에 기준한 종교적 제일(祭日) 등에 빠짐없이 연주된다. 또한 라마승에 의해 의례적인 색채가 강한 가면무용이나 자타카(本生譚)를 소재로 한 설화극과 함께 공연되기도 한다.

종교미술로는 밀교 특유의 만다라를 많이 사용한다. 만다라는 사물의 본질, 중심, 우주, 도량을 나타내며, 완전무결한 세계의 상징으로 괘폭에 그려져 사원안에 걸렸다. 만다라에는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이(理)의 세계를 나타내는 태장계와 원과 모(方形)를 짝지어 지(智)의 세계를 나타내는 금강계의 두갈래가 있는데 티벳에서는 후자의 만다라를 많이 사용하였다.

편 역 : 김 홍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김 정 환 〈동대부고 교장〉

집일이나 들일을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시던 어머니. 아침해를 가슴에 가득 안고 웃으시는 환한 얼굴은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모습이었다.

무한한 자유와 어지러운 세태의 탐욕도 질투도 영욕도 다 벗어두고 순수한 마음으로 웃고 일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은 완연한 무소유의 청정심이었다.

선비 가장을 만나서 가난에 쪼들리고 일에 한이 맺혀 아들을 낳으면 공부는 외면하고 일만 시켜서 배불리 먹고 잘 살아보자는 게 어머님의 소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을 수용해 주지 못했고 물질문명의 급진한 변모에 한을 남기시고 가신 어머님이었다.

칠남매의 막내인 나는 '무식과 가난'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공부를 포기할 수 없었다. 선친께서는 40여년간 서당에서 한학만 공부하셨기 때문에 세상물정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분이었다.

뜻모르고 외운 관음주력 '수행방편'

"고독 극복해야 깨달음 문턱에 간다" 생활신조

당신께서는 평생 공부만 하시고는 자식은 공부가 필요없다고 분노하신 분, 더욱이 내가 전공하려는 한글과 국문학은 천하게 여기시는 분이었다. 한글은 참새가 모이를 먹으면서 한걸음씩 나아가는 모양을 보고 선비가 뒷간에서 'ㄱ ㄴ ㄷ ㄹ …'을 만드셨다니 도무지 개화기의 신학문에는 전혀 이론이 통할 리가 만무하였다.

초창기의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식과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각오로 국문학에 뜻을두고 대학시험을 보기위해 부산에서 야간열차로 새벽녘에 서울역에 도착하였다. 눈이 내려 있었다. 세상을 아름답게 순화해 주는 눈, 영남에서 보기드문 백설이건만 길거리의 미끄러움과 숙소가 없어 밤만 되면 하룻밤을 지새우기 위해 짜증과 불평만이 앞을 서는 형편이라 눈을 보고도 기뻐할 줄 몰랐다.

서울역에서 걸인들과 함께 불꺼진 대합실에서 밤을 보냈고, 역앞 판자촌을 찾아가 잠을 자기도 했다. 노자를 아끼기 위해 명동성당을 찾아가 하룻밤을 묵으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여기는 잘 방이 없으니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라." 신부님의 말씀에 앞이 캄캄하였다. 다음에 찾은 곳은 조계사였다. 어떤 노스님께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따뜻한 방을 하나 마련해 주셨다. 거기다가 저녁과 아침밥까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어머님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길이 트인다고 하시던 말씀을 떠올리고 진심으로 불법에 귀의했다. 당장 눈앞의 대학합격이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관세음보살' 염송을 수도없이 했다. 그리고 나는 대학에 합격했다.

합격은 하였으나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 좌절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뻔 하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서양격언도 있지만 '관세음보살'을 염원하는 곳에 길이 있었다. 성북동의 한 암자에 숙소를 정하게 됐다. 식비는 드리지 못하고 절 일을 하며 애들도 돌봐주고 새벽이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장작을 만들어 절의 화목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글을 몰랐던 어머니의 산교훈인 관음주력을 시간날 때마다 했다. 뜻도 모르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 주력, 생활속의 끊이지않는 수행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거듭 다짐했다.

물욕이나 명예 때문에 자기를 가두고,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어머니께선 찾아오는 거지들도 재워주고 밥을 주고 옷까지 입혀주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정신이요, 무소유의 청정심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물질을 갖고나면 건강을 잃고, 건강을 회복하고나면 자식이 괴롭히는 현실, 자기 기준의 잣대로 이생을 살아가려 하지 않고 상대를 재며 비교하다보니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홀로 자신을 반조하며 제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도 큰 수행의 실천일 것이다.

'고독을 극복해야만 깨달음의 문턱에 이를 수 있다'는 평소의 생활신조가 내 수행의 길인 것이다.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둥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구입문의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본원: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581번지 (한신상가5층5호)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직장 스님)
●부설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전화 (051)864-3740
본회: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성지관음회
●전화 (0335)34-9490, 39-1906
이천/ (0342)706-3060
서울강남지회 (02)597-7581
서울강북지회 (02)747-7033
부산지회 (051)516-2713(지장정사)
대구지회 (053)323-2598
대전지회 (042)222-4936
광주지회 (062)228-8544
제주지회 (064)22-3324
경기수원남부지회 (0331)291-8549
경남진주산청지회 (0596)73-0039
경남마산지회 (0551)23-9016
경남울산지회 (0522)74-7536
창원지회 (0551)62-0076
세천당양지회 (0443)46-3023
의정부지회 (0351)873-0532
경주지회 (0561)772-3255
강릉 (0391)645-2117
거창지회: 0598-42-8534 장암사

관절염, 류마티스

CELL-GUARD(셀가드)

관절염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있다.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되는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

등에 대한 효능실험에서 멕시코 국립대학 임상연구결과 80명을 상대로 98% 이상의 완화(시카고 트리번지) 등에서 관절염, 관절통(통풍)등 기타 염증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및 관절염 노화 면역기능 악화에 탁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수영양식품
국립보건원
자가기준 및 규격
제 893-606호

"미국수입완제품"

하루 딱 한번만 복용!!

2달분(정제형)₩270,000
은행카드 소지자 3~12개월 분할 혜택

사례문

김진길(56세) 세계참피온 류명우 스승

상기 본인은 셀가드가 관절염·류마티스·통풍에 좋다는 소식을 세계참피온 지도자 조희동(前 세계참피온 박종팔의 스승)씨 등 많은 권투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관절염과 통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좋은 약은 다 먹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서 2달分을 구입하여 복용을 하기 시작하자 1달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여 6개월이 지나자 완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완전히 나아져 저 처럼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이 제품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삼 일 양 행
서울 : (代) 790-8200 (휴일도 근무함)
본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08번지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예금주 : (주)한국복지공사
농 협 : 094-01-146584
우체국 : 010025-0126305-11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등기,소포우송)